

설 황금연휴 앞두고 해외여행 예약 폭주

〈최장 9일간〉

동남아·유럽 등 항공편은 사실상 동나

겨울방학 접쳐 가족단위 여행 수요 급증

장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다음달 18일~22일)를 앞두고 여행업계가 후끈 달아 오르고 있다. 인기 있는 동남아권 상품은 물론 중국·일본·유럽 등 다른 지역 상품도 예약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항공편 예약도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다음달 16일~17일 이틀만 휴가를 내면 14일~22일까지 9일간 쉴 수 있는데다, 겨울방학까지 겹치면서 가족단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14일 광주지역 여행업체와 항공사에 따르면 다음달 14일부터 22일까지 설 연휴기간 동안 태국·베트남·중국·유럽 등 해외

에서 보내려는 해외여행객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광주 M투어의 경우 대만과 태국 등 3박 4일 일정은 사실상 예약이 완료됐으며 필리핀 세부와 괌 상품도 80% 이상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 광주 N관광도 동남아·중국·유럽 등 대부분의 상품이 90% 이상 판매됐다.

C투어도 태국 방콕을 비롯한 동남아와 괌, 사이판 등 인기 행선지의 예약이 마감됐다. T익스프레스도 17일부터 22일 사이에 출발하는 방콕~파타야, 푸켓 상품은 빈 자리가 없는 실정이다.

설 연휴를 전후해 항공편도 사실상 동이 났다. 다음달 17일과 18일 출발하는 대한항공 광주발-제주행 노선은 편도 8회로, 1504석 모두 예약이 완료됐다. 설날인 19일 좌석도 90%(676석 가량) 이상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

무안공항에서 출발하는 대만(160석)·태국(250석)·베트남(160석)·캄보디아행(160석) 전세기 5편의 좌석예약도 마감돼 대기 예약을 받고 있다. 이번 설 연휴 주요 관광지행 국내·국제선 항공편 예약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40%P 이상 늘었다는 게 여행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해외여행객 수요가 급증한 이유는 다음달 16일~17일 이틀만 휴가를 내면 14일~22일까지 9일간 쉴 수 있는데다, 겨울방학까지 겹치면서 가족단위 해외여행 수

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여파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감했는데, 참사의 분위기가 점차 사그라들면서 잠시 미뤄뒀던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가족단위 여행객들이 한꺼번에 대거 몰린 점도 주된 이유 중 하나다.

또 명절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완전히 자리잡은 것도 해외여행객이 늘어난 배경이다.

광주 N관광 관계자는 “국내보다 따뜻한 동남아권 상품은 지난해 말부터 예약문의가 잇따랐다. 다른 여행사 역시 예약률이 거의 90% 이상일 것”이라며 “예전에는 설 명절이 여행업계에는 일년 중 최대 비수기였는데 이제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 세월호 여파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



남구 '비타민 건강교실' 활기. 광주시 남구 주월보건지소는 14일 남구 대지동 하촌마을에서 '찾아가는 행복비타민 건강교실'을 열었다. 남구는 이날 마을 어르신 50명의 혈압·혈당 검사를 해주는 등 찾아가는 건강복지 서비스를 펼쳤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엑스레이 등 한의사 허용' 놓고 양·한방 갈등 깊어져

정부 규제 개혁 대상에 포함

의사단체 "진료비 부담 증가"

엑스레이, 초음파 같은 현대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는 14일 오전 10시 30분 공교롭게도 같은 시간에 각각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면서 공방을 벌였다.

갈등이 본격화된 것은 정부가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방침을 밝히

면서부터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8일 규제요전(단두대)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사 단체들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반발하자 한의사 단체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후 서로를 비난하는 성명전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나눈 뒤 건강상 위해성 여부를 판단해 허용 의료기기의 범위를 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의원

에 다니는 환자가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한 검사를 받으려면 일반 의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예를 들어 손목이나 허리가 접질린(염좌) 환자의 경우 한의원에서 침을 맞다가도 엑스나 골절이 아닐까 우려가 된다면 일반 의원에서 X레이를 촬영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당뇨 환자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일반 병원에서 혈액분석기를 쓴 뒤 검사 결과를 한의원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불허했던 이전의 규제를 개혁 대상으

로 삼은 것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2013년 12월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의사단체들의 반발은 거세다. “면허 반납까지 불사하겠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를 향의방문하고 대정부 요구사항이 담긴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협회는 항의 서한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현행 의료체계를 부정하고 국민건강의 위해, 국민의료비 증가, 의료의 질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규제요전 과제 추진을 강행하면 11만 의사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향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1, 해질 17:43, 달뜨기 02:03, 달지기 13:08

구름 걷히며 한결 포근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오후부터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0/9	보성	0/9	홍천	-2/9
목포	1/8	순천	1/8	홍주	2/10
여수	4/10	영광	4/10	홍주	-2/7
나주	-2/10	진도	2/10	홍주	1/9
완도	2/10	진주	2/10	홍주	-1/8
구례	-3/9	군산	2/9	홍주	-2/7
강진	-1/10	남원	2/9	홍주	-3/7
해남	-1/10	홍산도	2/9	홍주	4/7
장성	-2/8				



◇바다 날씨

목적지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남해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남해 앞바다(동)	북~북동	0.5~1.0	북서~북	0.5~1.0
서부 먼바다(동)	북~북동	1.0~2.5	북서~북	0.5~1.5
먼바다(서)	북~북동	1.0~2.0	북서~북	1.0~2.0

◇생활지수

동파	25
운동	10
빨래	20

◇물때

목표	밀물	썰물
여수	08:58, 21:08	01:41, 14:33
	04:26, 16:26	10:31, 22:40

◇주간 날씨

16(금)	17(토)	18(일)	19(월)	20(화)	21(수)	22(목)
☁	☁	☁	☁	☁	☁	☁
-1/6	-1/3	-4/5	-1/6	-1/6	0/6	0/5

진도 팽목항에 세월호 분향소 설치

가족대책위 어제 개소식

진도 팽목항 '기다림의 등대' 앞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설치됐다.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4시16분 희생자 가족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팽목항 기다림의 등대 앞에 임시분향소로 컨테이너(길이 6m×높이 2m) 2개소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열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추모 단상에 희생자 사진이 들어있는 소형액자(길이 15cm×너비 10cm) 304개를 전시하고 추모객을 맞이한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실종자들을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의미에서 4시16분에 개소식을 시작하게 됐다”며 “팽목항을 방문한 분들이 희생자들의 얼굴, 눈빛

을 바라보며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잊지 않길 바라고자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오영식(단원고 2년)군의 어머니 권미화씨는 침몰과 구조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정부와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는 ‘대국민 선제인양 호소문’을 낭독, 남은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한 인양 작업을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73일째인 14일 현재까지도 단원고 학생 4명(남현철·박영인·조은화·허다운)과 교사 2명(고창석·양승진), 일반인 3명(문재근·권혁규·이영숙) 등 9명이 실종 상태로 남아있다. 한편 가족대책위는 ‘선제인양’을 촉구하며 오는 26일 안산 분향소를 출발, 다음달 14일 진도 팽목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도로순례에 나설 예정이다. /박기용기자 pboxer@

배우 장근석 탈세 의혹

수십억대 추정금 부과

영화배우인 ‘한류스타’ 장근석(28)씨와 관련 연예기획사 대표가 역외탈세 의혹으로 수십억대의 추정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5~6개월간 장씨와 장씨의 중화권 활동을 증명한 H연예기획사 장모 대표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함께 수십억대의 추정금을 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은 지난해 장씨와 장 대표가 중국에서 활동하며 벌어들인 수입액 가운데 상당액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단행했다. /연향뉴스

전라남도 음식문화개선사업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반찬 덜어먹기 등 깨끗하고 낭비없는 음식문화 정착 기여

「남도좋은식단」 4대 실천강령

- ① 먹을 만큼 적정량 제공하기(재탕금지)
- ② 집게·국자·앞 접시 제공하기(덜어먹기)
- ③ 개인별 위생찬기 제공하기(개별찬기)
- ④ 주방개방 및 화장실 청결관리(청결관리)

한국외식업중앙회전라남도지회 회원 일동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기본3인분 3+3 = 30,000원	국내산갈매기살2+2(480g) 20,000
	기본4인분 4+4 = 40,000원	왕갈비탕(6,000원) 볼팩 (6,000원)

초대박매출

신규창업,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른쪽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민물수 있는 우리 지역광주의 본사 프랜차이즈입니다.

625대만리는만리도아닙니다.

착한 소갈비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암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바리다매!! 손님은 싸게 드시고, 임주는 적은마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착한소갈비는 불경기용 맞춤브랜드로 손님들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있습니다.